

불조심 행사

화재를 경계해야 하는 동절기가 다가왔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겨울철은 일년중 화재가 집중하는 계절이다. '97년도 행정자치부 및 우리 협회 특수건물 화재통계에 따르면 동절기에 해당하는 11월~1월까지 3개월간 발생하는 화재건수는 연중 총 화재건수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하여 안전관련 비용이 대폭 삭감되고 보험에 따른 모럴하azard(Moral Hazards)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올 겨울철은 대형화재 발생에 특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대형 사고 사례가 또다시 재현된 최근의 부천과 익산의 LPG 충전소 폭발사고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점점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없고 경제난국의 극복이나 경제의 재도약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가을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화재예방을 위한 행사를 알아보며, 아무쪼록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안전불감증을 치료하는 좋은 치료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1. 해외

가. 영국

영국에서는 1976년부터 매년 가을 화재안전주간(National Fire Safety Week)이라는 전국적인 화재예방운동을 개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전국 단위 추진 코디네이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무부(Home Office)와 영국소방협회(Fire Protection Association)는 화재안전주간에 대한 계획 입문서(Planning Guide)를 발행하여 지방에서의 화재안전주간 실시 지침으로 삼고 있다. '93년 이전에는 런던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개최하다 '94년 이후부터는 매년 개최지(주최 소방본부)를 바꿔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Surrey소방본부가 주최한다.

나. 미국

미국에서는 NFPA 주관하에 "소방훈련: 피난"이라는 주제로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치뤄진다. 이번 화재예방주간 행사는 가정에서의 피난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보도록 짜여져 있는데, 올해는 북미 합동소방훈련과 소방훈

련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콘테스트를 치른다.

NFPA의 화재예방주간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 “toolbox”는 소방서들이 소방훈련을 준비하고 각 지역 사회를 총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NFPA는 “피난”이라는 주제를 2000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매년 접수되는 가정 피난계획의 수를 체크하면서 3년간 가정 소방훈련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개선사항들을 문서화할 예정이다.

다. 일본

일본에서도 봄, 가을에 화재예방운동주간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화재예방에 관한 각종 행사를 갖고 있다.

『주의하자! 처음에는 모두 작은 불』이라는 포어로 1998년 11월 9일~15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는 이번 추계전국화재예방운동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과 그 중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주택방화대책 추진, 지역별 방화안전체제 정비 및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자력피난 곤란자가 있는 특정방화대상물의 철저한 방화안전대책 수립을 중점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이 홍보하는 불조심 7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① 집 주변에 타기 쉬운 것을 두지 않는다.
- ② 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 ③ 튀김을 할 때에는 그 곳을 떠나지 않는다.
- ④ 바람이 강할 때는 장작을 때지 않는다.
- ⑤ 아이들이 성냥이나 라이터를 갖고 놀지 못하게 한다.
- ⑥ 전기기구는 바르게 사용하고, 문어발식으로 배선하지 않는다.
- ⑦ 난로에는 타기 쉬운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2. 국내

가. 불조심 강조의 달

우리나라에서는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여 전 소방조직·매체를 활용한 범국민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기념행사·캠페인 및 시범훈련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21세기 소방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안전문화 정착, 안전생활화의 지속적 확산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 특별히 추진하는 행사로는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이벤트인 「소방역사 및 활동사진」 전국 순회 전시회와 안전문화 조기교육을 위한 「119 꿈나무 대축제」를 들 수 있다.

나. 불조심 어린이마당

우리 협회에서는 불조심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불조심 생활화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의 개최를 작년에 이어 2회째 준비하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불조심에 대한 교재(불조심 길라잡이)를 미리 제공하여 일정기간(약 1.5개월)동안 흥미롭게 자체 학습한 후 협회가 주관하는 평가에 의해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써, 자체 학습시 어린이 동원 또는 학교 수업시간 희생 등 정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과외활동(만화감상, 소연극 실연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행사는 어린 시절에 익힌 학습이 어른이 되어서는 생활화함으로써 자율적인 화재예방활동에 큰 도움을 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정광재 / 위험관리정보센터 과장